사랑도 값비싼 사랑을 해야지 값싼 사랑을 하지 말라

☞ 19면에서 계속

면 여러분 속에는 십일억의 불성이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불성이 하나냐 둘이냐.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요, 늘리면 백천 개로 몇만 개로 될 수도 있고 또 줄이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를 내 공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바로 '공했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휴, 참 세월은 무상해." 이렇게 말씀들 잘하시죠? 무상하다고요. 무상한 것은 허무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을?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항상 고정됨이 없이 우리는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그냥 던지고 빼 버린다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계도하고 올바르게 선정도 베풀고 올바르게 물리가 터져서 여러분과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이 물질이라는 거는 그저 없어졌다 생겼다가, 부서지고 또 썩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온통 이 야단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니 무상입니다, 무상!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게 허무해서 한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의 일체 만 가지 생활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저 태양은 그 만물만생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또는 산하대지는 만물만생을 길러 낸다. 천지가 둘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아니듯, 애들을 기르는 데는.

깊은 물 돌고 돌아
수증 되어 오르고 내리면서
만물만생과 더불어
산천초목도 두루 적신다

저 둥근 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밝게 비추어 주니
스스로 여여하고
스스로 그대로 실상인 것을!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아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자체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의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으로 나오고 선으로 나오는 거, 그거를 여러분 마음이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다.' 하고 거기 맡겨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정진이 돼야 됩니다. 무슨 화두를 갖는다 어쩐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껍데기에 또 껍데기를 씌우는 거나 한가지니까, 지금 이 밝은 세상에는, 문화 문명이 꽃피고 이렇게 발전이 됐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저 직접 나를 화두로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말입니다,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나무 꼭대기 천야만야한 데로 올라가서 나뭇잎을 입에다 물고선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와서 길을 물었답니다. 그러니 말을 하자니 입을 열면 땅바닥으로 그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져서 죽을 거고, 입을 안 떼자니 참 이거 미안하고 배신하는 거 같아서 이건 안 뗄 수도 없고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을 안 떼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이렇게 낚시를 던져서 채찍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예 묵비권이군요, 허허허. 아주 모두 도인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하지 뭡니까, 하하하. 하여튼 좋습니다.

예전에 경허 스님은 말입니다, 첫째, 사계절을 무조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사셨다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둘째, 경허 스님은 수염이 나지 않았대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세 번째, 경허 스님은 상투를 틀어서 동곳을 꽂았대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없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면 말도 한 사이가 없고 방귀 뀌는 거와 같을 텐데…. 항의가 없습니까? 역시 도인들이셔. 허허허. 아무리 도인들이라도 그 이치를 알고 몰라야지, 이치를 모르고 모른다면 그냥 모르는 거죠.

높은 산 누리에 하얀 눈 덮이고
가지마다 배꽃 피어 만발했는데
골짝마다 칡뿌리는 넝쿨지어 뻗어 나가고
서리 위에 칡꽃 피어 만발하였으니
그윽한 향내는 두루 하는구나
경허 선사 앞뒤 없는 대피리 소리
온 누리를 덮고 굴리니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고 나며 나투셨노라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깝게 있으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미래에 그 수박씨를 심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을 테니까요.

후렴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소리지만 또 한마디 할까요? 끝났으면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수화풍이라고, 지수화풍이 돼서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 배 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이 자기 생명이지 딴 생명들이 아냐. 자기는 뭉쳐 놓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자기라고. 나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불성이 있어요.

그 불성은 몇 개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겠죠. 아마 대충 헤아린다면 그 불성이 십일억이나 그쯤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한데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불성이 하나요, 또는 흩어지면 불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불성이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부처라고 했고 그것은 '무(無)'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좇아나왔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나온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쳇말로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그것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몸을 빌려서 났는데 어째서 그렇게 짊어지고 나왔느냐고 하시겠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짊어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던 거니까 걸머지고 나와 가지고서 입력이 돼 있는 게 솔솔 지금 현재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십일억가량이나 되는 그 의식에서 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아상이 있어서 죄를 짓고, 무기력해서 죄를 짓고,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고, 불순해서 죄를 짓고, 그저 평등하게 생각지 못해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지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 의식들이 차원에 따라서 전부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듯이 그냥, 금은 금방에 모이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러니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고 볼 수밖에. 전부 입력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 팔자 운명을 어디 가서 한탄을 하겠나. 자기 탓이지. 모든 게 잘했든 못했든 자기 탓이라. 그래서 악과 선도 놔라. 그걸 놓지 않는다면 악으로 간다면 선이 따르고 선으로 간다면 악이 따르니 악과 선도 놔라. 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진다. 입력이 됐던 것이 다 없어지면 홀연히 자기는 밝아질 거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또 뒤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몸 하나 구조가 모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가고 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친구야!' 하고 거기다 돌려놓죠. 허허, 영원한 친구거든.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는 둘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거든. 자기와 자기가 어떻게 둘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봉과 맷돌이 둘일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넣고 갈아내는 것도 둘이 아니거늘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거기다 맡겨 놓고,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되게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안 되게 한 것도 너니까.' 하고 맡겨 놓고, 또 남으로 인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채찍질해 주는 거지, 나는 경험을 얻고 그랬으니 그 많은 돈을 버렸어도 아깝지 않다 하고 내 탓으로 돌리고 놔라 이겁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너 때문에 나는 살고 너 때문에 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랑도 값비싼 사랑을 해야지 값싼 사랑을 해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요, 착이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간다면, 내 탓으로만 돌리고 나만 없다면 고정된 게 하나나 있나? 그러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때에 내가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했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 그놈들이 지금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움죽거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돌리는 대로 화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현도 부처요, 문수도 부처다. 왜? 한마음 속에서 나오니까. 한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문수고,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니, 어찌 그것이 둘이냐 셋이냐 이렇게 따지겠느냐.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이 생각 안 할 때는 부처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움죽거렸을 때는 바로 활용이에요.

그러니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깝게 있으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미래에 그 수박씨를 심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을 테니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1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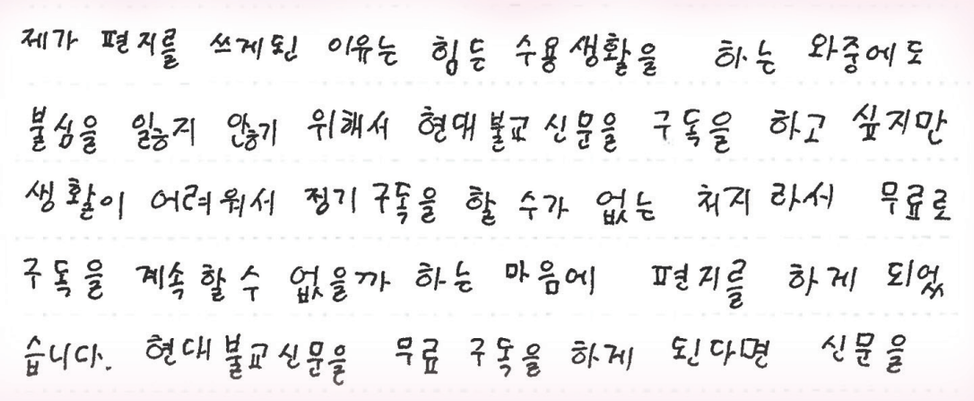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